

영광군 'e-모빌리티 엑스포' 성공 총력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
부산 업체들 찾아 참가 독려
정부 혁신성장 예산 반영
e-모빌리티 산업 탄력



영광군 관계자들이 지난 12일까지 사흘 동안 영광군 연산면 설도항 일원에서 열린 '제9회 영광 천일염·젓갈·갯벌 축제' 현장에서 e-모빌리티 제품을 전시하고 엑스포를 홍보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광 대마산업단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 군이 제안한 초소형 전기차 산업이 지자체 혁신성장투자 프로젝트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e-모빌리티 산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영광군에 따르면 영광군 e-모빌리티 엑스포추진단은 여름 휴가철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 엑스포를 홍보하고, 부산에 있는 e-모빌리티 관련 업체를 방문해 엑스포 참가를 독려했다.

지난 8일에는 완주에 자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찾아 지방자치단체 홍보 공간에 e-모빌리티 엑스포 홍보배너를 설치하

고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비치했다. 소주 제조업체인 보해양조와는 9월 초 생산되는 소주 200만 병에 붙는 라벨에 e-모빌리티 엑스포를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2일까지 사흘 동안 영광군 연산면 설도항 일원에서 열린 '제9회 영광 천일염·젓갈·갯벌 축제' 현장에는 다양한 e-모빌

리티 제품을 전시해 관광객들이 직접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최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이 공동 주재로 개최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 회의에서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

비스 육성 실증 지원 사업'을 건의했고, 이에 정부는 지자체 혁신성장투자 프로젝트로 예산을 반영하기로 결정해 영광군의 'e-모빌리티 산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업은 내년부터 7년 동안 480억원(국비 243억, 지자체 168억, 민자 69억)이 투입돼 초소형 전기차 성능, 신뢰성 고도화, 이동 서비스 모델 검증 등을 위한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초소형 전기차 215대를 영광군과 나주혁신도시에 투입해 실제 도로 주행시험을 통해 차량성능을 높이고 카셰어링, 물류배달, 소외지역 이동, 공유 지원 등 테마별(도시, 농촌) 이동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홍보행사를 통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같은 e-모빌리티 제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e-모빌리티 엑스포를 관람객이 즐기고,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이윤행(맨 왼쪽) 함평군수가 기재부 예산심의관에게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이윤행 함평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잔걸음

기재부·환경부·국토부 방문

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행 함평군수가 최근 민선 7기 지역혁신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차례로 방문하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류형선 지역예산교장을 만나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데 이어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관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을 방문해 함평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59억원, 함평 5일 시장 연결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48억원 등 총 4개 사업 283억 6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복지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안전 예산심의관 등 분야별 국·과장들을 만나

중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8억원, 함평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4억원, 송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등 모두 20개 사업 933억원의 국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지역혁신사업은 군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만큼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회도 문턱이 닳을 정도로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낙월도 여행 자전거 타고 편안히 하세요

영광수산업경영인연합회 장원서 회장 10대 기증

한국수산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 장원서 회장(사진 오른쪽)은 낙월도 발전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10대를 영광군에 기증했다.

향상에 앞장서 영광군 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원서 회장은 "조금이나마 낙월도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라도 수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증한 자전거는 낙월도에 배치하여 방문객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전거 공기구입도 설치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어업인 소득향상과 수산업발전엔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 장원서 회장님을 비롯한 수산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에 감사 드린다"며 "군에서도 도서지역을 비롯한 어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원서 회장은 남 다른 애정심으로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민들에게 꾸준히 기부행사를 펼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제 14대 한국수산업경영인영광군연합회장으로 취임해 어업인의 권익과 소득

/영광=이종운 기자 jylee@

무안군 20일까지 벼 병해충 집중방제

무안군은 최근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벼 흰등별구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벼 병해충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벼 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삭도열병은 예방위주로 출수 전 이삭이 2-3개 필 때 방제하며 흑명나방은 파해 앞이 1-2개 정도 보이거나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유충 피해증상이 보일 때 방제하면 된다.

8~9월 집중방제 대상 병해충은 멸구류와 먹노린재, 흑명나방,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으로 현재 지역 벼 병해충 발생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상승 발생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집중방제 기간에 방제해 예방적 관리를 해주기 바람 농약 사용 시 적용약제 혼용 여부, 희석배수 준수, 방제복 착용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멸구류는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방제해야만 미질 저하와 수량 감소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요리경연대회 김영희씨 '모듬물회·낙지 호롱' 대상

박선현·김부식씨 최우수상

(무안비빔밥)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무안연꽃축제 기간 일로음 회산백련지 주무대에서 열린 무안요리경연대회 대상은 모듬물회·낙지 호롱을 선보인 망운면 김영희씨가 차지했다.

이 외에도 우수상 4팀, 장려상 12팀 등 총 19팀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저마다의 맛과 색깔로 관광객 눈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도 천년, 황토골 무안천년의 맛! 무안을 대표하는 맛을 찾다'란 주제로 열린 요리경연대회에서 김영희씨가 대상을, 현경면 박선현(낙지 초여탕)과 경기도 군포시 김부식

무안군 관계자는 "요리대회를 통해 대표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무안연꽃축제 방문객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주고 무안의 대표 향토음식을 발굴·개발해 실용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함평군 갑질 의혹 보건소장 직위해제

함평군은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폭

무원법 65조의3에 의해 A보건의소장을 지난 13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로된 A보건의소장의 갑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광주일보 8월 3일자 12면 보도)를 벌여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A보건의소장을 13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보건의소장은 인사부주차장 불법주차와 직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갑질'을 한 혐의로 구설에 올랐다.

16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군은 보건소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갑질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할 것을 근거로 지방공

이에 함평군청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집행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함평군 11월까지 보리·밀 발아검사 무료 지원

함평군은 맥류 파종시기를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보리와 밀의 안전한 육묘를 위해 맥류 발아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4월 맥류 출수기의 잦은 강우와 이상저온으로 인해 발생한 붉은곰팡이병, 미숙립 발생으로 농가들이 우량종자를 확보하지 못해 발아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아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200g정도의 종자를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 의뢰하면 저온처리 과정을 거쳐 항온항습기에서 발아율을 테스트 한다.

5-7일 이내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발아율 8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종자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종자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토지 거래가 자주 이루어 지는 곳!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곳!
투자 하실분과 일하면서
배우실 분을 모십니다.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